

딱- 딱-
바둑판에 바둑
돌을 놓는 소리
만 간단없이 들
릴뿐... 주위는 사뭇 깊은 물
속에서처럼 고요했다. 모여
선 사람들이 어색성을 쌓고
숨소리조차 쉼전체 지켜보는
이곳에서는 어린선수들간의
열기면 《바둑격전》이 한창
이고있었다. 해마다 봄철을
계기로 열리는 제14차 평양
시봄철어린이바둑경기인것
이다.

여러가지 복잡한 정황속
에서 돌치리를 하면서 땀뻘 공
격으로 순식간에 상대방을
수세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
로는 능숙한 방어전술로 자

바둑명수후비들이자란다

기의 돌을 살리면서 집을 만
들어나가는 경기과정은 불수
록 흥미진진했다.
장기와 같은 다른 지능경기
들의 변화수와 대비할수 없으
리만큼 많은 변화수를 가지
고있는메다가 심도 또한 매
우 깊어 《최고의 지적경기》
로 일러오는 바둑경기. 입학
하기 쉽고 진공하기도 어렵지
않지만 졸업(골)은 없따고 하
는것이 바둑의 세계여서 어
른들도 힘들어하는 경기를 다
양한 수를 적용해가며 체법 능
숙하게 해나가는 이들을 보

느라면 이제 겨우 5~7살밖에
안되는 어린이들이라고 믿기
어려울 정도이다.
경기를 주최한 평양바둑원
의 윤용명원장은 개인전과
단체전, 혼성복식경기로 나
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에 평
양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,
소학교(1, 2학년)에서 온 우
수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
참가하였다고 하면서 해마다
경기참가자가 빠르게 늘
고있다. 보다 특징적인것은
2편승을 기록하는 선수가 없
다는것이다. 이것은 어린 선

수들간의 바둑실력이 도로리
키대보기이며 해마다 몰라보
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실증
해준다고 말하였다.
이번 경기과정에 지난해
8월경부터 바둑을 배우기 시
작한 평양시 모란봉구역 민
홍소학교의 최별선수는 소학
교부류 개인경기에서 실력이
높은 선수를 조별편명전에서
이기는 보기 드물 경기장면
을 펼쳐놓았다. 6살 난 평양
시 보통강구역 신원유치원
에서 온 김영명선수는 유치원
부류 개인전에서 4위를 하였
지만 1, 2, 3위를 차지한 선
수들보다 대방점수가 10여점
이나 더 많은 94점을 기록한
것으로 하여 이목을 끌었다.
대방점수가 많다는것은 그만
큼 상대선수들의 실력이 높
다는것을 의미한다.

경기에 참가한 적지 않은
유치원어린이들이 아마추어
5~6단과 맞먹는 높은 실력을
발휘하여 관람자들의 감탄을
불러일으킨 사실만 놓고도 공
화국에서 바둑의 밝은 미래를
엿볼수 있는것이다.

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
놀이인 바둑은 오늘 세계적
범위에서 광범히 보급되고있
다. 해마다 세계아마추어바
둑선수권대회가 열리고 큰
규모의 세계프로바둑선수권

대회만 해도 여
러개나 있다.
2001년에 어
느 한 나라에서
2001개의 바둑판을 놓고 세
계적으로 가장 큰 바둑추진
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각
국의 권위있는 프로선수들과
정치인, 경제인, 애호가들이
다 참가한 사실은 바둑에 대
한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를
잘 알수 있다.

공화국에서도 《만경대
상》경기, 《정일봉상》경
기, 《보천보해불상》경기,
《전승집》경기, 무도선수
권대회, 세계선수권선발경기
등 계기들마다 바둑경기가
활발하게 진행되고있다.

예로부터 바둑의 전략과 전
술, 온갖 묘리와 수법을 통
달한 사람을 가리켜 《국수》
(나라의 손이라는 뜻)라고 존
경해왔는데 그렇듯 뛰어난 실
력을 가진 바둑선수들을 키
워내는것이 목표라고 하면서
윤용명원장은 《우리 나라
는 7살나이에 제4차 세계아
마추어자바둑선수권대회에서
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민족의
영예를 떨친 최은아를 비롯한
훌륭한 바둑인재들이 적지 않
다. 우리는 평양시어린이바둑
경기, 전국어린이바둑경기,
평양시애호가경기와 같은 바
둑경기들을 통하여 뛰어난 바
둑명수후비들을 많이 키워
내겠다.》고 말하였다.

본사기자 홍범식

민족의 자랑-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

평통사대각국사비

평양민속공원에 실물과 똑
같은 크기로 만들어놓은 평
통사대각국사비는 원래 개
성시 룡흥동의 평통사에 있
던 고려시기의 종인 대각국
사 의천의 사적을 기록하여
1125년에 세운 비이다.

고려시기 평통사에 대각국
사 의천이라는 종이가 있었는
데 그는 11세기에 활동한 중
출신의 학자였다. 원래 이름
은 왕후이다. 문종의 넷째
아들인데 11살에 종이 되어
평통사에 들어가 불경을 공
부하였으며 유교의 교리도
연구하였다. 1085년을 이웃
나라에 가서 여러 사찰들을
순회하면서 불교를 연구하
였으며 이듬해에는 불경들
과 경서 1 000권을 가지고
귀국하였다. 그는 흥왕사에
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동방
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 나
라의 불교사적들을 구입하
여 1086년부터 4 769권에 달
하는 1 000여종의 많은 책을
출판하였는데 이를 고려 《속
장경》이라고 하였다.

의천은 불교경전인 《속
장경》을 출판하는데 기여
한 공로로 왕에게서 대각국
사라는 칭호를 받았다. 그후
여러 명산들을 찾아 순회하
였으며 흥왕사의 주지로 되
었다. 그는 중임에도 불구하고
현실적인 사회경제문제에
도 깊은 관심을 돌려 급속하
게의 류통을 보급시켜 교화
관계의 발전과 물가의 조절
을 적극 주장하였다.

이런 그의 사적을 기록하
여 세운 평통사대각국사비는
밑에 바닥돌을 한벌 깔고 거
북받침을 하였다. 그 위에
비몸과 비머리가 있다. 비
의 높이는 4.52m이다. 바닥
돌과 거북받침들은 하나의
화강암통돌로 되어있다. 바
닥돌은 남쪽너비 2.48m, 동
서길이 2.92m, 높이 20cm의
네모형이다. 거북받침의 네
발은 바닥돌을 힘껏 잡고 목
을 위로 쭉 내밀었다. 거부

고 그 바깥쪽에 묘실을 꾸린
내용을 기록하고 안쪽에 제
자들의 승적과 이름을 순서
대로 기록하였다. 앞뒤면의
비문과 테두리장식은 모두
오목하게 새겼는데 매우 섬
세하고 필치가 뚜렷하다.
비몸의 꼭대기에는 이 시
기 일반적인 툇틀임이나 합
각식지붕 형식과는 달리 우
진각지붕을 형성한 비머리를
엮었다. 지붕처마 밑에는 두
줄의 받침과련꽃무늬를 새
겼고 그 아래에 다시 두줄
의 받침과 서까래를 돌렸다.
평통사대각국사비를 일반 비
석들과 대비해볼 때 특이한
것은 비몸앞면주위에 꽃무늬
를 얹게 새기고 윗부분좌우
에는 봉황새무늬를 얹게 새
긴것이다.

이 비석은 고려시기의 출
판기술과 건축술, 조각술을
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
제공해주는 문화유물이다.
현재 고려박물관에 보존되
여있다.

본사기자 고영숙



태권도를 몇살에 배우는것이 좋은가

빠른 속도로 태권도가 세
계에 전파되는것과 관련하여
태권도를 몇살에 배우는것이
좋은가 하는 물음이 자주 제
기되고있다.

많은 운동들이 조기교육을
요구하고 또 조기운동이 사
람들의 지적발육과 체질변
화, 운동기술습득에 영향을
주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.
하지만 태권도는 자기의
적성나이를 가지지 않는것이
이 특징이다. 어릴 때부터
배울수 있고 학창시절에도
할수 있으며 다 커서도 할수
있다. 가정부인도 할수 있고
로인도 할수 있으며 지어 불
구자도 배울수 있는것이 태

권도이다.
태권도는 본질에 있어서
육체를 보존하고 지키는 무
술이다. 그러나 현시대에 들
어서면서 건강적의미가 더
크게 부각되고있다.
여원 사람에게는 근육을
증가시키는 반면에 비대한
사람에게는 지방을 감소시켜
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하게
하며 로인들에게는 혈압을
안정시켜주고 피로함을 좋게
하여 젊음을 되찾게 한다.

하루 1시간정도 시간을 바
쳐 1년반정도의 정상적훈련
을 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남
을 지켜줄수 있는 1단정도
의 육체적기술을 가질수 있

본사기자



조선의 여자마라손의 전도는 밝다

얼마전에 진행된 중국 대
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서
공화국선수들이 우수한 성
과를 거두었다.

지난 시기 국제마라손경기
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
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
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
공화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
않은 2명의 신진선수들이 출
전하였다.

공화국선수들은 처음부터
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
다. 그것은 평양체육단의 김
지향선수가 19살로서 참가자
들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어
리기때문이었다. 마라손경
기에 참가하려는 선수의 나
이는 최소한 20살은 되어야
한다. 그러므로 20살도 안되
는 김지향선수가 105리를 페
달질수 있었는가 하는 전문
가들의 우려는 무리가 아니
였다. 하지만 결과는 예상밖
이었다.

경기는 비가 내리고 바람

이 세계 부는 속에서 진행되
었다. 공화국선수들은 출발
신호와 함께 시작부터 선두
에서 달렸다. 에티오피아선
수가 바짝 뒤를 따랐다. 그
는 조선선수들의 상태를 라
진하면서 앞서나갈 기회만을
노리었다.

그런데 30km지점에서 대
담하게 뛰어나가는 선수가
있었다. 김지향선수였다.
앞에는 넘어온 길보다 경사
가 더 급한 언덕길이 12.
195km나 있었다. 그러나 그
는 구간당 시간을 시작때보
나 2분씩 단축하며 빠른 속
도로 달리었다. 마지막구간
에서 이만한 시간을 단축하
며 달린다는것은 모험이었
으나 그는 조금도 주춤거
지 않고 결승선을 향해 기
운차게 달리었다. 하여 뒤
따르던 에티오피아선수들
이 수백m나 떨구고 결승레
스를 끊었다. 김책공업종합
대학체육단의 림금희선수는

3등을 하였다. 이번에 김지
향선수는 1등을 하였을뿐아
니라 대회기록을 갱신하는
성과를 거두었다.

불리한 일기조건, 구배가
심한 언덕에서의 105리격전
에서 우승자가 다름아닌 제
일 어린 조선의 김지향선수
라는것이 알려지자 관람자
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
었다.

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대회
에서 조선선수들이 높은 정
신력과 기술을 보여주었다.
조선의 여자마라손선수들가
운데는 우수한 선수들이 여
러명이나 된다. 그런데 이번
에는 20살도 안되는 김지향
선수까지 혜성같이 나타났으
니 여자마라손선수층이 얼마
나 두터운가 하는것을 잘 알
수 있다. 조선의 여자마라손
의 전도가 대단히 밝다고 이
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
않았다.

본사기자

◆ 변질한 우유를 버리지 말고 화분

에 준다.
변질한 우유라 해도 식물
에는 리로운 영양물질이 많
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맑게
다서 꽃에 준다.

그런데 잘 쓰지 않은 우유
를 화분에 주어서는 안된다.
우유가 발효될 때 많은 열

◆ 꽃은 물을 식혀서 꽃

에 준다.
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
푸르싱싱한 잎사귀에 탐스리
운 꽃송이가 피어난다.

◆ 날씨가 더운 겨울에는
온도가 35℃되는 물을 화
분에 주면 꽃잎이 싱싱해
진다.

◆ 쌀뜨물로 꽃을 자배운다.

쌀뜨물을 주면 탐스리한
잎사귀에 고운 꽃송이가 피
어나게 된다.

본사기자

산 당 화 (1)

글 전철호, 그림 김윤일

누구나 개성명에 들어서면
마을들과 야산기슭에서 세발
간 작은 꽃잎들을 활짝 펼치
고 새봄을 먼저 알리는 희
귀한 산당화를 띄어볼수 있
다.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
산당화를 대할적마다 고향방
을 지키며 한창의 꽃나이를
서슴없이 바친 힘없는 한
처녀의 고귀한 행적을 추억
하곤 한다.

×
임진년(1592년)의 무더운
여름이 서서히 흘러가고있
었다.
처절씩- 처절씩-
서해에서 밀려오는 레성강
의 푸른 파도는 기세쫄게 벽
란도의 기슭을 때린다. 기울
어가는 반달은 물결기를 잇
댄 레성강의 밤을 환하게 드
러냈다. 처녀 이쁜은 소나무
가 우중충한 야산을 등지고
서 선장가의 느리나무아래에
앉아있었다.

머리를 들면 출렁이는 강
도소리를 들을세우고 저 강
 건너에서 하늘에 닿은 높이
 솟은 아스라한 봉산이 안겨

오지만 이쁜의 눈에는 그 모
든것이 보이지 않았다.
좀 있으면 주인 황백치의
분부를 받고 개성에 심부름
을 간 창우가 돌아올것이다.
그 길로 창우는 또 주인의
령을 받고 이 강을 건너 연
안성으로 가야 한다. 사실
창우와 이쁜은 연안성에서
의병을 일으킨 리정암의병
장을 찾아가자고 남몰래 언
약했었다.

하나 이쁜은 그 언약을 지
킬수 없게 되었다. 그것은
자기가 꼭 여기 벽란도에 떨
어져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
생겨서였다.

그 사정을 어떻게 한두마
디로 창우에게 알리랴. 랑반
부자들치고 마음이 곧고 선
례를 옮겼고 그후에는 리정
암이 있는 연안성으로 가서
본대나계 왜놈을 때려잡자
고 호통을 쳤다.

이쁜은 사흘전 자정무렵에
야 그놈의 배숙을 낚날이 알
수 있었다. 이미 번심한 황
백치의 더러운 배숙을 훔쳐
고 그날 저녁도 설것이를 끌

에다 복수의 칼날을 버리는
심정이였다.

(황백치 이놈! 개만도 못
한 놈!)

지금이라도 당장 칼을 뽑
아들고 황백치의 면상을 후
려치고싶었다. 그런 놈을 주
인으로 섬겨온것은 분명하
다. 황백치로 말하면 배숙은
기껏 여기 벽란나무를 벌은
종9품의 도승이지만 재물이
많기로서는 개성에서 손가락
에 꼽는 부자다. 하기에 그
는 개성거리에는 본택을 두
고 벽란도며 레성강 건너 배
천 그리고 서울에도 여러 첩
을 끼고 흥청거린다.

그는 임진왜란이 터지자
레성강을 지킨다며 아예 벽
란도의 여기 첩배 집으로 자
리를 옮겼고 그후에는 리정
암이 있는 연안성으로 가서
본대나계 왜놈을 때려잡자
고 호통을 쳤다.

이쁜은 사흘전 자정무렵에
야 그놈의 배숙을 낚날이 알
수 있었다. 이미 번심한 황
백치의 더러운 배숙을 훔쳐
고 그날 저녁도 설것이를 끌

내자 상전의 입맛을 돋굴 도
라지를 손질하고있었다.

이쁜이 가로세로 가늘게
찢어낸 도라지를 찬물에 담
고그 허리를 펴니 교묘하게
흐르는 달빛에 반짝에 솟은
백련산이 마치 강 건너의 봉산이
마음을 산란하게 흔들었다.

산천은 의구한데 고향방
벽란도는 숨이 죽은듯 하였
다. 고려대 500년동안은 개
경의 얼굴로서 벽란도가 그
렇게 변장하였다는데 여러
나라 배들이 주저는 돛대로
술을 이루곤 하였다는 설창
에는 기껏 나무배 몇척이다.
그나마 갑자들이익친 섬
나라 쪽발이란에 이 주변마
음들은 텅텅 비었다.

그래서인지 황백치의 소실
백씨가 사는 이 큰 기와집은
상여도가 처럼 여겨지는 이쁜
이었다. 백씨의 기와집은 벽
란도의 선창에서 수백모 야산
을 에둘러 부른것의 좀 음침한
곳에 들어있는데 밤이면 은근
히 머리칼이 곤두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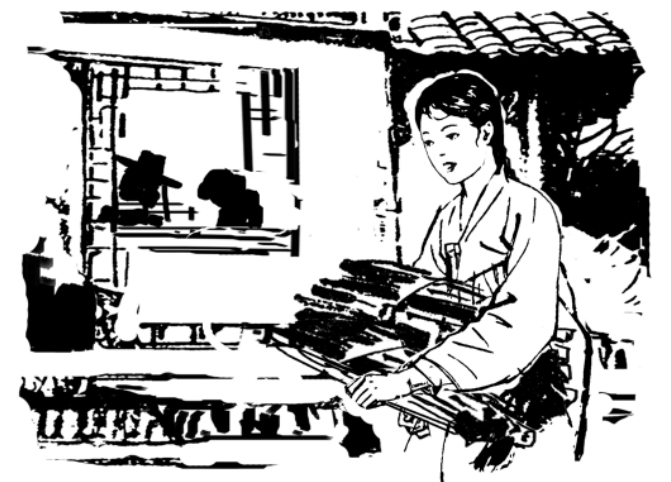
호- 이쁜은 까닭모를 한
숨을 내쉬고 뒤돌안에 가려
놓은 장작무지로 다가갔다.

두런두런... 안방에서 새
여나오는 남님의 목소리였다.
이쁜은 남의 정복을 훔쳐
버든 얼굴이 화끈거려 얼

른 장작을 한아름 안고 돌
아갔다.

《임자! 난 연안성으로 가
지 않겠네.》
불쑥 황백치의 탁한 목청
이 곁에서처럼 크게 들렸다.
이쁜은 저도모르게 신경이
도사러지며 불밝은 창가로
끌려갔다.

《안 간다는건 무슨 소리



나이까?》
백씨의 교태어린 음성이
똑똑히 들리었다.
《안 가니까 안 가는거지.
홍, 내가 미쳤다고 그 많은
재산을 개성에 버리고 가난
뱅이들의 편으로 간단 말이

야?》
《아유- 언젠 뒤 우리 집
에 들린 리조참의앞에서 의
병부대만 무으면 선봉장이
되겠냐고 큰소릴 치더니,
헛!》

《요런 맹추라구야. 아.
그러야 리정암이 그놈이 날
믿으라고 한것이고 또 여기
에 그냥 떨어져있어도 다른

이쁜은 하마터면 비명을
질러낸 듯했다.
그때 남들은 다 강을 건
너 연안성으로 가는데 질질
날자를 끌면서 첩의 치마꼬
리나 매만지는 꼴이 어찌
미심쩍다 했다. 이쁜은 당
장 식칼을 찾아들고 년놈들
과 해보고싶었다. 이런 판인
출 모르고 황백치의 말구중
인 창우는 밤새 마구간에 쭈
그리고앉아 그놈이 잘 타
라고 밤빛공팔말에 귀밀을 먹
이고있을것이다.

(어서 창우에게 알리자.)
이쁜이가 말소리를 죽여
창가에서 돌아서러는데 《창
우놈은 연안성에서 보내자
는가야.》 하는 황백치의 말소
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.
《그녀석은 왜?》
《난 벌써 리정암의 턱밑
에다 내 아이들을 박아넣었
어. 성의 형편을 낚날이 렴
탐해서 왜인정을 알려준다
면야 알도리가 있지. 잘만

하면 리정암이 그놈의 목도
따라 바칠수 있거든.》

《아유, 서방님은 참말이
지 머리가 땀이 한가지라니
까. 현대 그 녀석이 우리 말
을 고분고분 들을가?》
《걱정수 팔자다. 내 그걸
다 내다보고 리정암이한테
간계를 쓰라고 했던거야. 리
정암이 내 등을 두드려며 어
려운 때 사람의 진속을 알수
있다고, 적중에서 몸을 잘
돌보라고 하던 말을 입자도
들지. 연안성에서 날 저희
들의 눈과 귀로 어길것인즉
이게 바로 등치고 간 빼먹는
수란 말이야.》

이쁜은 치를 떨었다. 언제
나 웃는 낯으로 조금만 더
일하라고, 그러면 인차 창우
와 짝을 무어주고 집도 장
사밀친도 주겠다니 황백치의
교묘을 하늘처럼 믿었었다.
창우는 한밤중에도 황백치의
비밀지령을 품에 차고 비친
장으로, 은과장으로, 서울로
다리에서 꼴물을 빼며 울리
뛰고 내리뛰면서 그놈의 재
산을 불구어주었다.
(내가 눈이 멀었었지.)
이쁜은 이를 갈며 다시 창
가로 발뼘발뼘 다가갔다. 황
백치의 탁한 목소리가 그냥
울려나왔다.